

보도시점 2023. 10. 4.(수) 11:00
< 10.4.(수) 석간 >

배포

2023. 10. 3.(화)

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, 역대 최대 신고·도착금액 달성

- 신고 239.5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+11.3%), 도착 139.2억 달러(+20.2%) 기록

2023년 3분기(1~9월 누적)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.3% 증가한 239.5억 달러를 기록하여,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.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.2%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139.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* 연도별 3분기(1~9월 누적) 신고금액 추이: ('19) 134.9억 달러 → ('20) 128.9억 달러 → ('21) 182.1억 달러 → ('22) 215.2억 달러 → ('23) 239.5억 달러

【업종별】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.7% 증가한 90.2억 달러, 서비스업은 9.0% 증가한 138.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제조업에서는 전기·전자(33.2억 달러, +27.0%), 화공(30.1억 달러, +61.1%) 등의 업종이, 서비스업은 금융·보험(74.0억 달러, +107.2%), 숙박·음식점(3.1억 달러, +228.5%) 등의 업종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.

【국가별】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전년도 대형 M&A투자의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한 51.9억 달러(△27.2%), 9.3억 달러(△10.5%), EU, 중화권은 각각 전년보다 증가한 40.0억 달러(+38.1%), 22.3억 달러(+49.9%)를 기록하였다.

【유형별】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미국(50.5억 달러, +2.8%), EU(21.4억 달러, +38.9%), 중화권(20.1억 달러, +43.3%), 일본(8.3억 달러, +16.1%) 등 주요국 투자 증가에 힘입어 총 167.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.4% 증가하였고,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(M&A) 투자는 71.6억 달러로 5.5% 다소 감소하였다.

【평가】위와 같은 역대 최대실적 달성은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. 특히,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되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 금번 역대 최대실적은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엄재영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형 (044-203-408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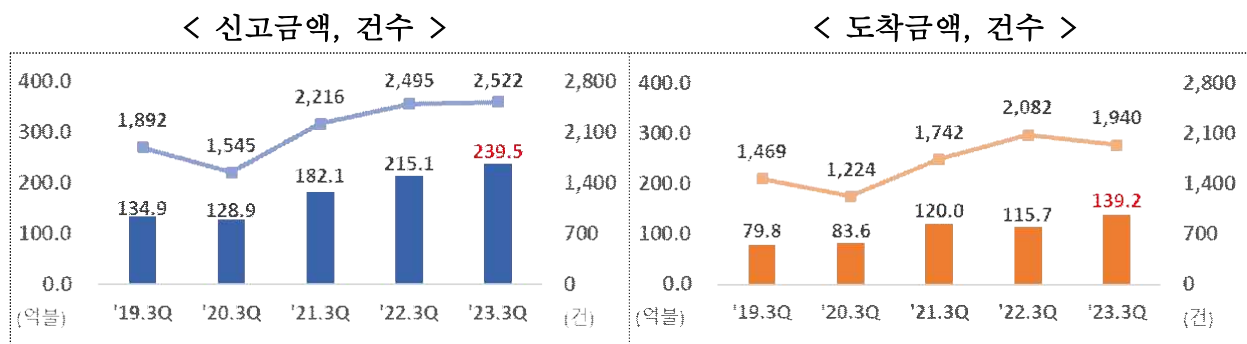
I. 총괄

□ (실적) 연간 3분기(1~9월 누적) 기준 역대 최대 신고·도착금액 달성

○ (금액) 신고 239.5억불(+11.3%), 도착 139.2억불(+20.2%)

* 3분기(7~9월)만의 실적은 신고 68.6억불(역대 2위), 도착 54.9억불(역대 1위)

○ (건수) 신고 2,522건(+1.1%), 도착 1,940건(△6.8%)



□ (평가) 신고·도착 모두 역대 최대실적 달성으로 외투 모멘텀 확대·가속화

○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미국, 중국 등의 외투가 감소*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

* 對미국 FDI(美 상무부 발표) : ('22.上) 2,146.6억불 → ('23.上) 1,813.7억불(△15.5%)

對중국 FDI(中 상무부 발표) : ('22.上) 1,123.5억불 → ('23.上) 980.0억불(△12.8%)

○ 첨단전략산업 국내 수요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가 다수 유입된 것이 제조업 분야 투자의 역대 최대실적 기록 요인으로 분석

○ 한국의 안정된 투자 환경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신뢰가 신규투자 역대 최대실적 기록으로 연결

* 신규투자 : 117.7억불(+17.3%), 증액투자 : 112.3억불(+2.4%)

○ △대통령 순방 세일즈(美, EU 순방 계기 '23년 31.4억불), △기업친화적 정책 기조(규제혁신, 인센티브 강화) 등 투자유치 노력이 실적 달성에 기여

* 규제혁신 : 투자가(기술창업) 비자 연장, 산단 입주제한 완화, 현금지원 사전심사 도입 등
인센티브 강화 :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, 현금지원 최대한도 적용 등

II. 세부 동향(신고기준, 업종별 · 국가별 · 유형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1. 업종별

□ (금액) 제조업(90.2억불, +15.7%, 비중 37.7%), 서비스업(138.0억불, +9.0%, 비중 57.6%), 기타업종(11.3억불, +7.0%, 비중 4.7%) 모두 증가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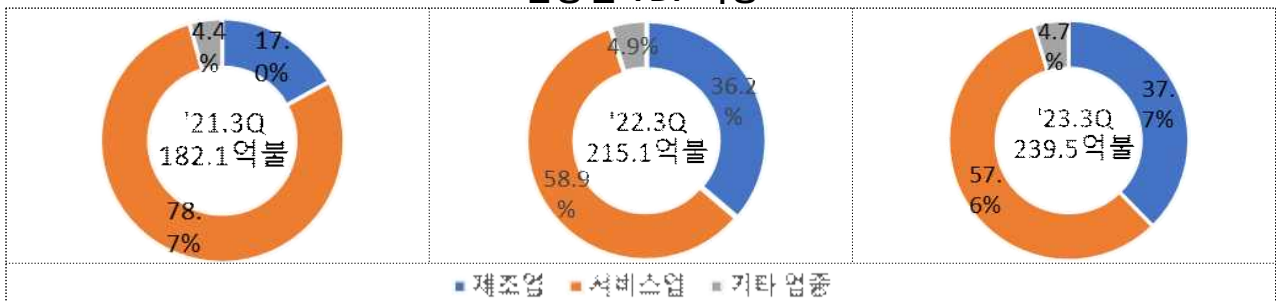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업종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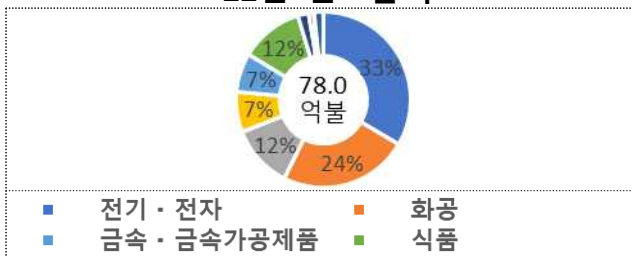


< 업종별 FDI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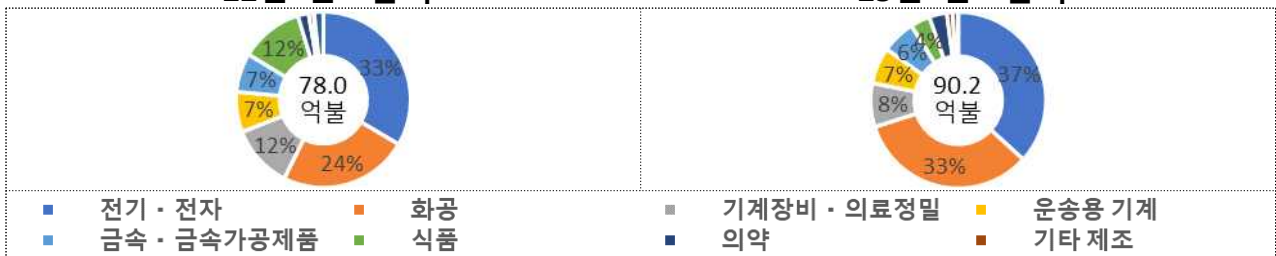


○ (제조업) 90.1억불(전년동기比 +15.7%, 비중 37.7%)

< '22년 신고금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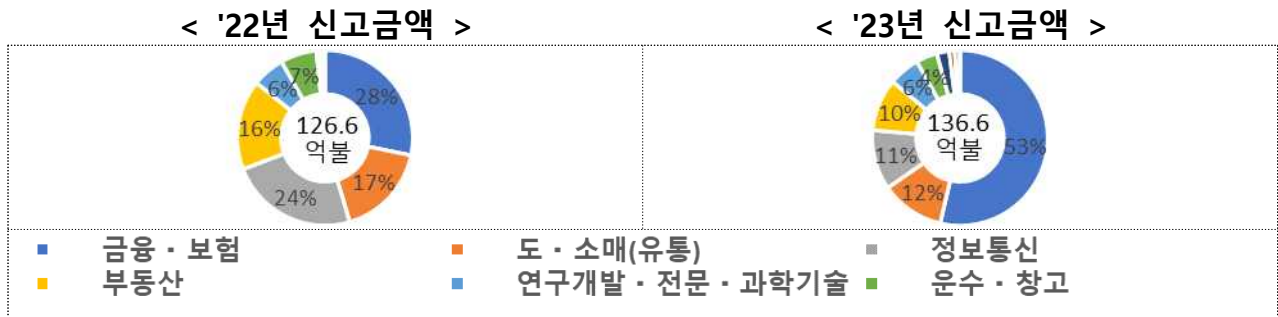


< '23년 신고금액 >



- (증가업종) 전기·전자(33.2억불, +27.0%), 화공(30.1억불, +61.1%), 의약(2.9억불, +86.8%), 비금속 광물(0.9억불, +886.6%) 등
- (감소업종) 기계장비·의료정밀(7.3억불, △20.1%), 식품(3.3억불, △64.0%), 섬유·직물·의류(0억불, △100%)

○ (서비스업) 138.0억불(전년동기비 +9.0%, 비중 57.6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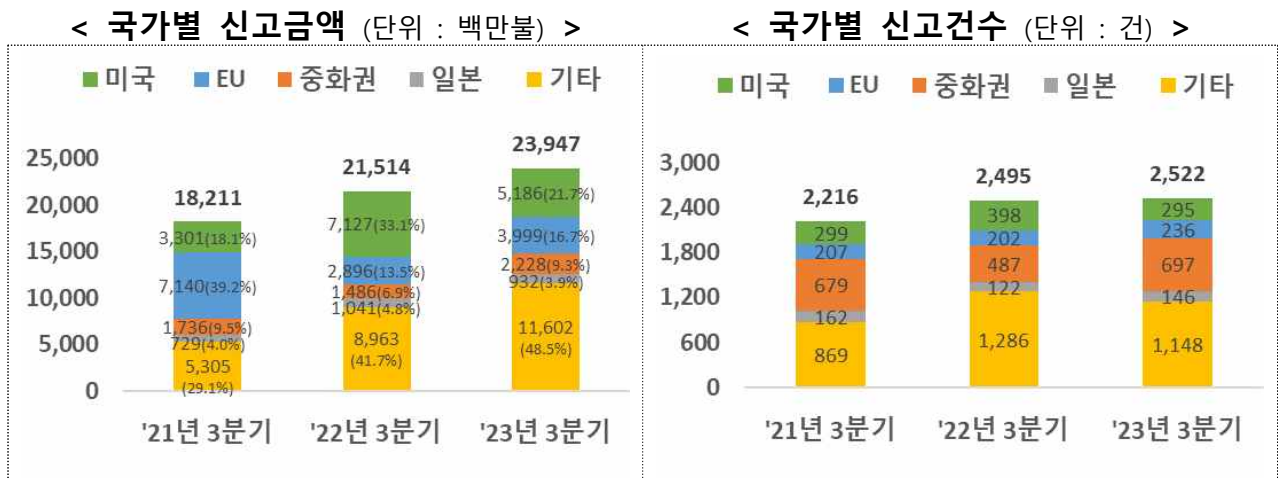
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74.0억불, +107.2%), 숙박·음식점(3.1억불, +228.5%), 사업지원·임대(1.4억불, +906.3%) 등
- (감소업종) 도·소매(16.2억불, △25.9%), 정보통신(15.3억불, △49.2%), 운수·창고(5.4억불, △35.9%) 등

□ (건수) 제조업(313건, +6.8%), 서비스업(2,093건, +0.4%) 증가, 기타업종(116건, △1.7%)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
2. 국가별

※ 이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부터 발표되는 통계가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, 중화권은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를 제외한 중국, 홍콩, 대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□ (금액) 미국(51.9억불, △27.2%, 비중 21.7%), 일본(9.3억불, △10.5%, 비중 3.9%)은 감소, EU(40.0억불, +38.1%, 비중 16.7%), 중화권(22.3억불, +49.9%, 비중 9.3%), 기타 국가(116.0억불, +29.4%, 비중 48.5%)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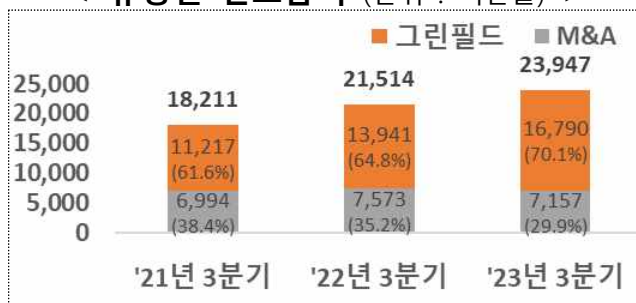


- (미국) 51.9억불(전년동기比 △27.2%*, 비중 21.7%)
 - * 전년도 대형투자(18.0억불, 제조업·M&A)에 의한 기저효과
 - (업종별) 제조업(29.3억불, △1.7%), 서비스업(22.5억불, △45.1%) 모두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50.5억불, +2.8%) 증가, M&A(1.4억불, △93.9%) 감소
- (EU) 40.0억불(전년동기比 +38.1%, 비중 16.7%)
 - (업종별) 제조업(11.8억불, +180.9%), 서비스업(24.0억불, +36.1%) 모두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21.4억불, +38.9%), M&A(18.6억불, +37.2%) 모두 증가
- (중화권) 22.3억불(전년동기比 +49.9%, 비중 9.3%)
 - (업종별) 제조업(10.3억불, +8.1%), 서비스업(11.9억불, +177.8%) 모두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20.1억불, +43.3%), M&A(2.1억불, +165.0%) 모두 증가
- (일본) 9.3억불(전년동기比 △10.5%*, 비중 3.9%)
 - * 전년도 대형투자(2.5억불, 서비스업·M&A)에 의한 기저효과
 - (업종별) 제조업(4.7억불, +9.3%) 증가, 서비스업(4.6억불, △25.0%)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8.3억불, +16.1%) 증가, M&A(1.0억불, △69.6%) 감소
- (기타 국가) 116.0억불(전년동기比 +29.4%, 비중 48.5%)
 - (업종별) 제조업(34.1억불, +13.1%), 서비스업(75.0억불, +30.1%) 모두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67.5억불, +25.9%), M&A(48.5억불, +34.8%) 모두 증가
- (건수) 중화권(697건, +43.1%), EU(236건, +16.8%), 일본(146건, +19.7%)은 증가, 미국(295건, △25.9%), 기타 국가(1,148건, △10.7%)는 감소

3. 유형별

- (금액) 그린필드(167.9억불, +20.4%, 비중 70.1%) 증가, M&A(71.6억불, △5.5%, 비중 29.9%) 감소

< 유형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그린필드) 167.9억불(전년동기比 +20.4%)로, 제조업(76.3억불, +80.9%) 증가, 서비스업(81.9억불, △5.9%) 감소

○ (M&A) 71.6억불(전년동기比 △5.5%)로, 제조업(13.9억불, △61.2%) 감소, 서비스업(56.2억불, +41.6%) 증가

□ (건수) 그린필드(2,305건, +0.9%), M&A(216건, +2.4%) 모두 증가

4. 자금별

□ (금액) 신규투자(117.7억불, +17.3%, 비중 49.2%), 증액투자(112.3억불, +2.4%, 비중 46.9%) 모두 증가

* 신규투자 :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

증액투자 :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
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자금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신규투자) 117.7억불(전년동기比 +17.3%)로 제조업(42.1억불, △19.8%) 감소, 서비스업(69.7억불, +54.9%) 모두 증가

○ (증액투자) 112.3억불(전년동기比 +2.4%)로 제조업(41.8억불, +86.0%) 증가, 서비스업(65.2억불, △18.1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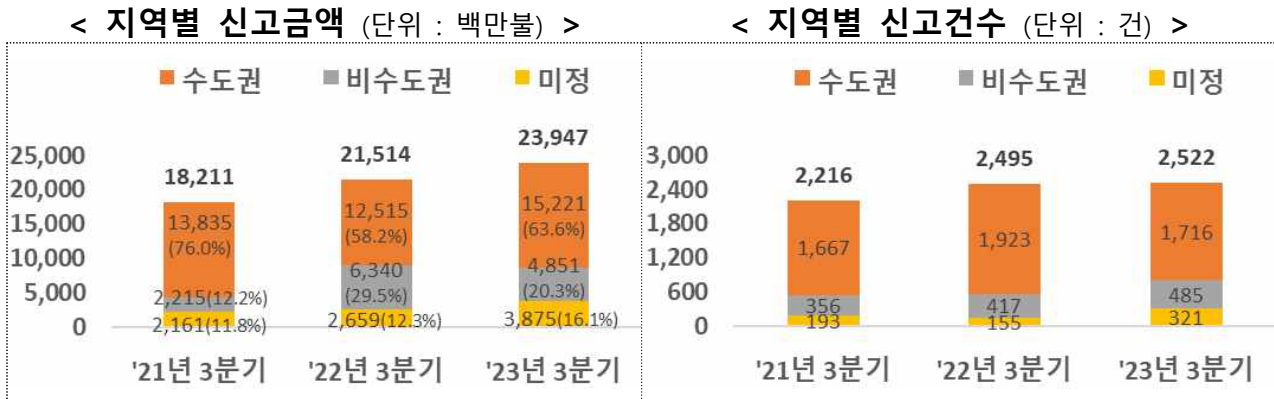
□ (건수) 신규투자(1,609건, +4.0%) 증가, 증액투자(838건, △1.8%) 감소

5. 지역별

※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
□ (금액) 수도권(152.2억불, +21.6%, 비중 63.6%) 증가, 비수도권(48.5억불, △23.5%, 비중 20.3%) 감소

* 미정(38.8억불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

○ (수도권) 152.2억불(전년동기比 +21.6%), 제조업(37.5억불, +97.2%), 서비스업(111.4억불, +6.9%) 모두 증가

* 서울(114.9억불, +29.0%), 인천(3.9억불, △15.6%), 경기(33.4억불, +6.3%)

○ (비수도권) 48.5억불(전년동기比 △23.5%)로 제조업(37.8억불, △15.4%), 서비스업(8.3억불, △28.5%) 모두 감소

* 증가 시·도 : 경북(12.58억불, +406.6%), 울산(5.48억불, +189.3%), 경남(4.69억불, +154.4%), 광주(3.78억불, +1,554.2%), 대전(3.07억불, +1,060.3%), 세종(1.38억불, +3,834.1%), 강원(0.28억불, +208.0%)

* 감소 시·도 : 전북(8.61억불, △54.8%), 전남(2.47억불, △62.7%), 충남(2.12억불, △34.1%), 부산(1.71억불, △61.2%), 충북(1.62억불, △86.8%), 제주(0.45억불, △95.7%), 대구(0.26억불, △55.0%)

□ (건수) 수도권(1,716건, △10.8%) 감소, 비수도권(485건, +16.3%) 증가

Ⅲ. 2023년 3분기 주요 외투 주요 사례(3억불 이상 상위 22개건)

구분	투자기업	금 액 (억불)	업종	유형	주요 내용
계		102.8		그린필드 : 53.1억불 M&A : 49.7억불	
1	○○社	10억불 이상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2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보안기업 지분인수
3	○○社	10억불 미만 ~ 5억불 이상	제조 (화공)	M&A	산업용특수가스기업 지분인수
4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폴리이미드 필름 업체 인수
5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6	○○社		서비스 (도·소매)	그린필드	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
7	○○社	5억불 미만 ~ 3억불 이상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암모니아수소 터미널, 크래킹시설
8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9	○○社		제조 (금속)	그린필드	자동차 업종 투자협력 강화
10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수소 사업 확장·고도화
11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반도체 패키징 시설
12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이차전지 생산공장 확장
13	○○社		서비스 (정보통신)	그린필드	콘텐츠 제작·유통
14	○○社		전기수도	그린필드	해상풍력 발전단지
15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16	○○社	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암모니아수소 터미널, 크래킹시설
17	○○社		제조 (운송용 기계)	그린필드	조선해양기업 지분인수
18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그린필드	전자상거래기업 인수
19	○○社		서비스 (부동산)	그린필드	부동산 투자
20	○○社		제조 (기계장비)	그린필드	풍력터빈 핵심부품 생산시설
21	○○社		제조 (식품)	그린필드	감미료 생산시설
22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그린필드	모기업의 한국 자회사 지분 확대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- 본 자료는 2023년 9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3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4년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